

유럽, 공해오존 농도 기록적 상승!

수주간의 열파로 인체 유해수준에 도달 ... 자동차 속도제한 등 강구

유럽의 열파가 현재 유럽 대륙 거의 모든 곳에서 연일 유해오존 농도 수준을 기록적으로 높이고 있으나 유럽 당국은 환경오염을 주민들에 통보하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이상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주 동안에 걸친 이례적 고온과 장시간의 일조량은 특히 많은 차량이 몰려드는 유럽 주요도시 부근에서 오존농도를 위험스런 수준에까지 계속 올려놓고 있다.

프랑스의 오존농도 수준은 1991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최고에 달하고 있으며, 수도 파리에서는 8월14일 차량속도 제한 조치가 계속 발동됐다.

동부의 스트라스부르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자가용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유도하고자 버스 요금과 자전거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7월 말 이래 오존농도 역시 인체 유해 수준을 넘어 포르투갈에서는 당국이 노인들과 호흡 장애자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있도록 당부했다.

오스트리아 당국도 자가용 차량 사용을 자제하도록 국민들에 권고했다.

벨기에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오존농도에도 불구하고 프레야 반덴 보쉐 환경장관이 자동차 속도제한에 대해 비효율적 조치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웃 룩셈부르크의 운전자들은 지난 주부터 고속도로 상의 차량속도를 통상적인 시속 120km 대신 90km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스위스의 일부 지역들은 훨씬 엄격한 속도제한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도 오존농도가 크게 상승해 4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18>